



연합법회



순례법회



테마법회



아침·점심법회

직장불자회 법회 '각양각색'

지역·직종따라 다양한 이벤트 선보여

전국의 직장·직능불자회는 대략 500여 곳. 제각기 규모, 지역, 근무 환경, 직업 특성 등에 따라 이들 불자회의 법회 형식은 그야말로 각양각색. 동일 지역 연합법회, 직종간 합동법회, 지역 사암연합회와 연계한 사찰순례법회, '테마 중심의 이벤트법회' 등 다양하다. 이들 직장불자회가 어떻게 법회를 보고 있는지, 그 법회 형식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 '몽치는 법회' 늘고 있다= '합동' 또는 '연합' 방식의 법회가 최근 직장불교회에서 주요 법회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일 직종·지역별로 뭉치고 있는 것은 정보 공유, 법사 지원, 수직 열세 극복 등 상호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직종간 연합단체를 결성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경찰불교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등이나, 직종과 상관없이 동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울산불교신행단체연합회, 대구·경산직장불교협의회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 가까운 사찰을 찾아 떠난다=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는 매월 초하루에 지역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80여 개 사찰을 순례하면서 법회를 병행한다. 사찰순례법회는 불단 설치부터 지도법사 섭외 등 법회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의 사찰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다. 서울 강남구청, 서대문구청 불심회 등 여러 구청 불자회들도 사찰순례법회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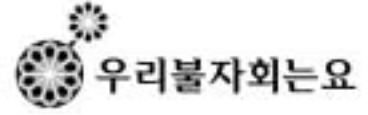
지역 사찰과 유대를 강화, 거점 사찰로 활용하고 있다.

▲ '테마' 법회 인기 많다=의식 중심의 법회가 차량안전기원, 환경, 승진축하, 다도 및 사찰음식 강좌 등의 '테마법회'로 바뀌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장 금강회는 절기에 맞는 옷놀이·설날·추석 법회,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만생명을 위한 불자들의 서원'을 담은 환경법회, 서울은행 불교행우회는 가족법회,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는 승진축하법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식상해온 직장불자들이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 '자투리' 시간을 백분 활용한다=연료사 불자연합회 회원사 4개 불교연구회는 24시간 방송, 신문제작 등에 따른 교대근무로 매월 한번씩 '점심법회'를 보고 있다. 한 데 모이기 어려운 회원들의 근무 환경을 배려한 약식법회는 '짧지만 굵은 법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 금융결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 사법연수원 다르마 법우회 등이 '1시간의 미학'을 경험하고 있다. 아침법회도 열리고 있다. 서울 중앙경찰서 법우회는 아침시간을 활용, 참선 법회를 열고 있다. 이 같은 직장불자회의 법회 개최시간 파괴현상은 기존의 저녁 시간 법회에 비해 회원 참석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한국은행 불교회

'금융계 불자회의 터줏대감' 우리 한국은행 불교회를 이렇게들 부르신다. 지난 1985년 12월 금융계 처음으로 불교회를 창립, 18년째 한주소 거르지 않고 법회를 병행하는 불교회라 칭찬들이 대단하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우리 불교회는 '불자답게 무애한 은행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은행생활을 해왔을 뿐입니다.

우리 불자회의 처음 식구는 본점 직원 30여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직장불교회는 흔하지 않았지요. 기껏해야 사찰의 신도회 활동을 전부였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일터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고, 은행생활을 하려고 땀 흘린 거죠. 대동은행장을 역임했던 조성준 법우님, 현 동양그룹 고문인 홍순우 법우님 등의 초

행 등 국내 20개 금융기관의 불교회 창립에 모태가 됐다는 점입니다. 89년 처음 병행했던 전국금융계 합동법회가 올 봄에 29번째를 맞는 겁니다. 더욱이 92년부터 각 은행 불교회 간사들의 모임인 '금융계 불교회 운영위원회' 결성을 주도해 불축행사 참여, 불교방송국 개국준비 성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몰아닥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20개의 금융계 불교회가 14개로 줄게 됐고, 98년에는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에서 분리됨에 따라 회수 수도 급감하게 됐지요. 하지만 우리 불교회는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뉘숭숭한 마음을 독송·참선 등의 소모임으로 다잡

국내 20개 금융기관 불교회 창립 모태

천수경 법우 등 3월 12일부터 천일기도



◇ '부처님 닮기를 서원합니다' 한국은행 불교회 회원들이 두손을 모으고 있다.

창기 회원들은 석주스님, 법정스님, 정병조, 이기영, 목정배 교수 등 교계에 내 노라는 당대의 스님과 학자를 초청,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지요. 또 전국 각 지점을 돌며 지회 불교회 창립을 지원하고, 매월 한 차례의 서울 근교 성지순례법회, 연 2회 용맹정진 법회, 해인사 수계법회 등 왕성한 신행활동을 펼쳐왔지요. 현재는 본점 외에도 대구경북 본부, 부산 본부, 광주 전남본부, 제주 본부 등 5개 지회에 200여 명의 회원이 신행활동을 하는 불교신행단체로 성장했지요.

고, 쉬지 않고 법회를 꾸준히 열었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죠. 지금은 <법화경>, <불교경전입문> 등의 교리강좌와 함께 <금강경> 사경법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회는 3월 12일부터 창립 20주년 맞는 2005년 12월 6일까지 천일기도에 들어갑니다. '매일 천수경 일독하기' 운동으로 전개되는 기도정진입니다. 이를 통해 '한결같다'는 한국은행 불교회 기존의 모습과 함께 금융계 불교회의 모범되는 직장불교단체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우리 불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 하용이 한국은행 불교회 간사(대외협력팀 부국장)

울산시청 공무원불자회 출범

18일 창립법회, 지도법사 백양사 목산스님

울산 지역 최초의 공무원 불자회가 창립됐다. 울산광역시청 불자회는 지난해 11월 시청 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는 한편, 18일 울산 백양사에서 창립법회를 열었다.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을 울산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창립준비위원장 장광대(도시개발과장·50) 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출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울산시청 공무원불자회는 4개월 전부터 청사 내 인트라넷을 통해 회원 모집에 들어가 현재 5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초대 지도법사로 백양사 주지 목산스님을 위촉했다. 울산시청 불자회는 곧바로 정기법회, 수련회 개최, 인근 전통사찰 순례법회 등의 신행 활동을 펼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울산 지

역 10여개 신행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자회는 1년 내 울산광역시 산하 5개 구청에 불자회 창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불자회는 이들 구청을 순회하는 법회를 병행하고, 지역 사찰과 결연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장광대 위원장은 "울산 지역에서 처음 창립된 공무원 불자회인 만큼 신행활동에 모범이 되는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법당마련·지회개편 추진

도시철도법우회, 올 사업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선다.

법우회(회장 이정환)는 23일 서울 성동구 안정에서 신년 법회를 열고, 올해부터 자체 법당 마련, 지회 조직 개편, 사회봉사 활동 강화 등의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법우회는 우선 지하철 2호선 답십리역에 자체법당 마련을 추진해 안정적인 법회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회원 확대 차원에서 법우회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우회 조직을 답십리역과 잠실역 등 2개의 지회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단체장



공블련 재경지역 신년법회

노옥섭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18일 서울 봉은사 대웅전에서 공블련 재경지역 신년하례법회를 병행했다.



영주암서 정기총회 열어

하명찬 우리은행 부산불자회는 18일 부산 망미동 영주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법회를 병행했다.



청해스님 초청 정기법회

서병하 서울 마포경찰서 불교회 회장은 21일 경찰서 4층 경승실에서 천안 만경사 주지 청해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병행했다.



조계사에서 신년하례 법회

최양섭 국제청 보리회 회장은 16일 서울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병행하고 신년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맑은 정성, 맑은 햇살로 빛낸 사찰토종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은 음력 10월이던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북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북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아 매울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 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독메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주문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매주 1말 6kg 57,000원**
 초기품과 원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분말메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H · P 011-203-6667,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 서울 02)742-0172 / 부산 054)514-3566 /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 대전 042)862-8638 / 강원 055)299-5419 /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 광주 062)681-3268 / 경북 033)642-0987